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나 호남인사나

지도부 선출 놓고 긴장...천정배·박지원·박주선 등 거론 安 대선 전 당직 사퇴규정·호남의원 확장성 한계 '발목'

국민의당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안철수 대표 진영과 호남 현역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일단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까지다. 또 차기 전당대회는 창당 후 6개월 이내에 치러지도록 명시돼 있다. 국민의당이 2월 2일에 창당된 만큼 8월 2일 전에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총선 전 임시 지도부의 성격이 강했던 현 지도부와 달리 차기 지도부는 임기 2년 동안 당을 이끌게 된다. 국민의당 신임대표와 지도부는 이번 총선 돌풍을 내낸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 '녹색 바람'을 이끌어낸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정식으로 전당대회에 출마, 당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냐는 의견이 있다. 당의 실질적인 장업 주이자 간판으로서 리더십까지 검증된 만큼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당을 안정시키고 당세를 확장하는 데 적임자라는 주장이다.

다만,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려면 대선 1년 전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안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안 대표가 7월말에 신임 당 대표로 취임하고 내년 대선에 나서려면 오는 12월 까지 불과 5개월 밖에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 의원이 대표직을 다시 맡는다면 더민주 문제인 전 대표의 전철을 밟으면서 당내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에서는 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박주선 의원 등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사가 당권을 잡아야 당내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대표 진영에서는 호남 현역 의원들이 당권을 잡을 경우, 호남 자민련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당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당권 경쟁 구도가 현실화될 경우, 안 대표 측근 그룹과 호남 현역 의원 그룹 간의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국민의당 내

부에서는 다음 달까지는 시급한 국회 원 구성에 우선 집중하고 전당대회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20대 국회에서 3선 의원이 되는 유성열·장병완 의원, 4선에 성공한 김동철·주승용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소속 의원 38명 중 호남 지역구 의원이 23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호남 출신이 원내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 진영에서는 수도권에서 당선된 재선의 김성식 당선인이 적임자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대표로 누가 유력하느냐에 따라 원내대표 자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정현, 호남출신 첫 새누리 당권 도전

3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여당 후보로 '호남 지역구 재선'이라는 새 기록을 세운 이 의원이 기세를 몰아 '호남 출신 첫 새누리당 대표'라는 도전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순천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새누리당 당 대표에 도전해 대한민국과 새누리당을 바꿔보겠다"고 선언했다.

신한국당·한나라당 당직자로 전배가 굵은 이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가 됐고, 박근혜정부 출범 뒤 청와대 정부·홍보수석을 거치며 '대통령의 복심' 등으로 불려왔다. 지난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순천·곡성에 출마해 26년 만에 새누리당의 첫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역주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이 의원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친박(친박근혜)계 내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애초 친박계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선 참패의 원인제공자로 비판받고 있고 있어 당권 도전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친박계에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등이 당권 도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를 우선 극복해야 한다. 일단 스스로 정치권에서 입지를 굳힌 '스토리'와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인 공천과동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비박계가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당 안팎 요구도 적지 않아 이 의원의 도전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김종인 2기 비대위' 호남지역 이개호·이춘석 포함

비주류 대거 발탁...친노 全無 6월께 전대...당대표 초미 관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대표는 17일 이춘석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는 등 총선 이후 당의 전열을 정비하고 당 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인 체제'의 2기 비대위는 김 대표와, 지난 15일 임명된 6명의 비대위원을 포함해 모두 9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전북, 김 전 의원은 부산을 대표한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4선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3선의 진영 양승조, 재선의 정성호 김현미, 조선의 이개호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

비대위원은 김 대표를 제외하면 지역적으로 수도권 4명, 호남 2명, 충청 1명, 영남 1명이 포진하게 됐다.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대체로 계파색이 없거나 비주류에 가까운 이들이 대거 발탁돼 운동권 정당 문화 탈피와 중도층 표심 공략을 강조해온 김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강경파보다는 당무에 밝은 합리적 중도 인사들이 비대위에 대거 포함돼 김 대표가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민주 18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분부장, 대변인, 비서실장 등 정무직 당직 인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꾸러짐에 따라 향후 전당대회



더민주 비대위원 인선 완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대표는 17일 이춘석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며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사진은 더민주 2기 비대위원인 이종걸(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진영, 정성호, 김현미, 이춘석, 김영춘, 이개호, 양승조. /연합뉴스

가 관심사다. 전대는 준비부터 2개월 가량 소요됨을 고려하면 빨라도 6월 하순에야 개최 가능하다. 관심사는 누가 당권 레이스에 나설지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출마 가능성과 함께 합외추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김 대표가 총선 승리를 견인한 만큼 적임자라는 것이다.

반면,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불모지 대구에서 당선된 김부겸 전 의원이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당 주변에서는 정세균 의원과 박영선 전 원내대표, 86(80년

대 학년·60년대생) 그룹의 이인영·우상호·정청래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후보를 낼지도 주목 대상이다. 친노 후보가 나오면 또다시 전대가 친노 대 비노 구도로 형성되며 계파 대결의 양상을 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 문 전 대표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가 변수다. 두 사람은 총선 과정에서 대체로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당 정체성, 비례대표 선출 과정,

문 전 대표의 광주행 등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패권주의 해소와 당의 중도화를 관철시키려면 친노가 넘어야 할 산이 되겠지만, 이 경우 친노와의 갈등과 대립을 감수해야 한다. 친노 역시 자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김 대표와 협력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차기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 친노로서도 누가 당권을 잡을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정교과서 폐지" 두野 첫 공조 결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현재 검·인정 시스템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國定)교과서 전환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정교과서 전환은 더민주는 물론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도 반대했던 내용으로, 그동안 야권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던 두 야당의 첫 공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상돈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16일 "20대 국회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위원장은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로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양당 모두 이미 당론으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가 순조로울 것이다.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야당이 과반이어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초선 131명·최연소 31세

20대 국회 당선자 보니...최고령 76세 김종인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300인 가운데 여성 의원은 51명·남성 의원은 249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당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정의당으로, 총 6월 가운데 절반인 3명이 여성이었다. 새누리당은 총 122명 가운데 15명(12.3%), 더불어민주당은 총 123명 가운데 24명(19.5%), 국민의당은 총 38명 가운데 9명(23.7%)이 여성이었다. 무소속 당선인 11명은 전원 남성이었다.

20대 국회에서 최연소 당선인은 국민 의당 김수민 비례대표 의원으로 1986년생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보라 당선인(1983년생)과 부산 연제구에서 당선된 더민주 김해영 당선인(1977년생)까지 총 3명이 20~30대 '젊은 피'다.

반면 최고령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5선이 된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1940년생이

다. 김 대표를 비롯해 무소속 강길부(1942년생)·국민의당 박지원(1942년생)·새누리당 서정원(1943년생)·더민주 문희상(1945년생) 당선인 등 총 5명이 70대 나이로 국회에 입성하는 '노의장'을 과시했다.

4·13 총선 당선으로 5선이 되는 당선인은 11명, 4선이 되는 당선인은 32명, 3선이 되는 당선인은 50명이었다. 자신의 두 번째 금배지를 달게 된 재선 당선인은 69명, 20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에 등원하게 된 초선 당선인은 총 132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당선인 249명 가운데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총 42명(약 17%)이었고 나머지 207명은 병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인 300명 가운데 69%인 207명은 전과가 없었고, 나머지 93명(31%)은 1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권일기자 cki@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